

# 20세기 전반기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

—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을 중심으로 —

김태우\*\*

## 〈차 례〉

1. 서론
2. 마에마 교사쿠와 알렉산더 홀로도비치
3. 마에마 교사쿠의 『龍歌故語箋』
4.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두 권의 중세한국어 문법서인 마에마 교사쿠의 『龍歌故語箋』과 알렉산더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세한국어의 문법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던 시기 발간된 『龍歌故語箋』은 당시 중세한국어 문법 연구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책이었다. 홀로도비치도 그 중 하나였다. 홀로도비치는 1940년대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어 역사 문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1950년대에는 중세한국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원고화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 25,000자 분량의 원고가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1986년으로, 이것이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이다. 이 논문의 서문에는 마에마의 『龍歌故語箋』과 류창선의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1-끝)』을 많이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의 검토 결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은 『龍歌故語箋』의 성과를 수용하는 한

\* 이 글은 2021년 1월 21-22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인하대학교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해의 한국학 집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조교수

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발전시킨 중세한국어 연구서라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 연구를 통해 중세한국어 문법 연구의 발아기에 이루어진 한국학 지식의 전파 양상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마에마, 前間恭作, 홀로도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龍歌故語箋, 소련, 중세한국어

##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 외국인들의 중세한국어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과와 교수였던 알렉산더 홀로도비치(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의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15세기 한국어 문법 자료)』<sup>1)</sup>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龍歌故語箋』<sup>2)</sup>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정치·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교육 기관에 어문학과 역사 관련 연구·교육 학과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학은 실용적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어 교육·연구에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언어사의 연구는 어느 정도 연구 역량이 확보된 이후에나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의 한국학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역사 문법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 사실을 방증한다.

이런 배경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중세한국어가 연구된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한국어와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

1) Холодович, А. А. (1986),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Фонетика.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5*. Москва: Наука, 1-35; Холодович, А. А. (1986),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Морфология.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6*. Москва: Наука, 1-62.

2)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東京: 東洋文庫.

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계어임을 증명하기 위해 두 언어의 어휘를 비교하였고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한국어 방언 연구에 뛰어들게 된 것도 계통 문제 때문이었다.<sup>3)</sup>

홀로도비치가 한국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한국어의 구조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sup>4)</sup>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그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현대한국어뿐 아니라 중세한국어까지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여러 편의 논저로 남겨졌다. 이들 논저가 발간된 시기는 1950년대 중반 이전으로 매우 이른 것이다. 그 중 유일하게 남겨진 중세한국어의 저작이 바로 본고에서 다루게 될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이다.

홀로도비치의 제자들과 그의 학문에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이 러시아 한국어학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연구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아마 그의 연구가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필자는 김태우(2020)과 김태우(2021)에서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조망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이어지는 것으로 홀로도비치의 중세한국어 연구 성과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 2. 마에마 교사쿠와 알렉산더 홀로도비치

마에마 교사쿠는 한국의 고서 연구가이자 수집가로 『古鮮冊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동양문고의 한국 고서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루(在山樓) 장서의 구장자(舊藏者)이며 조선어 통역관이었다. 그는 1891년 외무성 조선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1911년까지 한국에서 공사관, 서기관, 통역관 등을 지내다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다수의

3) 이에 대해서는 야스다[安田敏朗](1999) 참조.

4) 홀로도비치(1941)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계어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나자와와 오구라가 제시한 근거가 전혀 언어학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우(2021) 참조.

한국의 고서를 수집하였고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가 『韓語通』(1909), 『龍歌故語箋』(1924), 『鷄林類事麗言攷』(1925), 『朝鮮の板本』(1937), 『訓讀吏文』(1942), 『古鮮冊譜』(1944, 1956, 1957)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편찬하였다.<sup>5)</sup> 한국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주로 옛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에마를 한국어 연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시각과는 별개로 『龍歌故語箋』과 『鷄林類事麗言攷』은 한국어 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진태하 1992:135). 1930년대에 한국어 역사 문법을 연구한 양주동, 전몽수<sup>6)</sup> 등이 마에마와 교류가 있었고 『龍歌故語箋』과 『鷄林類事麗言攷』를 공부하였으며, 특히 전몽수는 마에마로부터 한국어 역사 문법에 대해 여러 가지 교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sup>7)</sup> 또 해방 직후 『龍飛御天歌』의 주석서와 논문이 여러 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sup>8)</sup> 이는 마에마의 『龍歌故語箋』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마에마가 민족 연구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오구라 신페이의 『郷歌及び吏讀の研究』(1929)가 여러 한국 연구자를 향가 연구의 길로 이끈 것과 비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 홀로도비치는 일본어학자·한국어학자·언어유형론자이다. 홀로도비치는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대학과 레닌그라드 대학 중국·일본어학부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홀로도비치는 1932년부터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일본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홀로도비치는 1934년부터 중국·일본어학부 아래 개설된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이후 일본어문학과·한국어문학과의 학과장을 맡으며 1961년까지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복무하다가 1962년부터는 레닌그라드 언어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sup>9)</sup> 레닌그라드 대학에 복무하는 동안 『한국어 문

5) 마에마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는 시라이[白井順](2015), 진태하(1992)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6) 전몽수(田蒙秀)는 김일성종합대학 국문학과 교수이며 1930년대부터 옛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연구 논문을 모은 『朝鮮語源志』가 1947년 평양에서 발간되었다.

7) 마에마와 전몽수의 교류에 대해서는 시라이(2016) 참조.

8) 이상춘(1946), 류창선(1947ㄱ-ㄴ), 김성철(1948), 방종현(1947ㄱ, 1947ㄴ, 1948ㄱ, 1948ㄴ, 1949)가 있다.

9) 홀로도비치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는 Khraskovsky & Ogloblin(1993ㄱ, ㄴ), Васильев(2004),

법:제1부 형태론』(1937), 『한국어의 구조』(1938), 『조로 사전』(1951, 1958), 『한국어 문법 개요』(1954) 등의 저작을 남겼다.

홀로도비치가 아주 이른 시기에 한국어 연구를 한 것에 비해 그의 연구는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37년 이미 러시아어 문법과 구조주의적 시각 아래에서 음운론을 비롯하여 한국어 문법론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169쪽 26000단어 분량의 문법서 『한국어 문법:제1부 형태론』을 발간하였다. 이로부터 20여년 후 발간된 『한국어 문법 개요』는 시제·상, 정보구조, 태 범주 등의 논의에서 아주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홍택규 2000, 김태우 2020<sup>1)</sup> 참조). 본고에서 살펴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15세기 한국어 문법 자료)』(이하 『Материалы』)는 『한국어 문법 개요』가 집필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중세한국어의 문법을 정연하게 기술하고 있는 업적이다.

『Материалы』은 책의 서두에도 밝혀져 있듯 『龍歌故語箋』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저술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홀로도비치가 『龍歌故語箋』의 문법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문법 체계 위에서 『龍歌故語箋』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룩해 낸 것이다. 아래에서는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을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3. 마에마 교사쿠의 『龍歌故語箋』

#### 1) 발간 경위와 체제

마에마의 『龍歌故語箋』은 저서 분량으로 나온 최초의 한국어 역사 문법서

---

<sup>1)</sup> Trocevic(2014)를 참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이현희 1993:109). 『龍歌故語箋』은 『韓語通』의 체계에 따라 『용비어천가』의 시구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며 주석을 단 것으로 緒言 10쪽, 본문 145쪽, 색인 9쪽으로 이루어진 선구적이고 당시로서는 탁견이 보인 연구서이다(안병희 1979:370). 이 책은 완전한 언어학적 해설서이기 때문에 각 시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龍飛御天歌』의 각 시구를 거의 빠짐없이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龍飛御天歌』에 포함된 모든 문법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龍歌故語箋』의 서언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그는 한국어 옛말에 대한 연구는 한글 문헌의 연구에서부터 차차 표기 자료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하며, 한글로 된 문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유형은 옛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둘째 유형은 옛말을 비슷하게 흉내낸 문헌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문자 언어의 보수성으로 인해 문헌이 당대의 언어가 아닌 과거의 언어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둘째 유형의 문헌이고 대부분의 한글 문헌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옛말의 연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첫째 유형의 문헌이다. 마에마는 성화·홍치 연간(1465~1488)에 발간된 책들이 첫째 유형의 문헌이며, 『龍飛御天歌』, 불서 언해류(『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원각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월인석보』), 『두시언해』를 첫째 유형의 문헌으로 들고 있다.<sup>10)</sup>

즉, 마에마는 옛말을 그대로 옮긴 첫째 유형의 문헌인 『龍飛御天歌』를 그 연구 대상으로 택해 한국어 옛말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둘째 유형의 문헌으로 옮겨가고 그 연구 결과를 모아 다시 한글이 없던 시대의 언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늦어도 『韓語通』을 간행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鷄林類事麗言攷』가 『龍歌故語箋』이 발간된 바로 이듬해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미 마에마는 자신이 설정한

10) 첫째 유형의 문헌을 언급하는 중 『월인석보』—본이 주시경이 가지고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이현희 1993:110의 각주 7 참조), 마에마 자신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몽수(1937:43)에 마에마로부터 『월인석보』 두 권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월인석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 몇 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국어 역사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龍歌故語箋』의 독특한 점이라면 당대의 다른 주석서들과는 달리 어구에 대한 주석은 빠짐없이 달려 있으나 장 전체에 대한 해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현희(1993:112)는 i) 마에마가 장 전체를 번역할 만큼의 중세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ii) 따라서 『龍飛御天歌』 국문가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iii) 조선을 식민지화한 1920년대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조선의 창업을 천명으로 돌리려는 『龍飛御天歌』의 편찬 의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 2) 판본

『龍飛御天歌』는 1447년 간행된 원간본, 1612년 간행된 원간본의 복각본인 만력본(萬曆本), 1659년 책판을 다시 새긴 순치본(順治本), 순치본의 보관본인 건륭본(乾隆本)이 있다(이기문 1962ㄱ, 이호권 2019 참조). 원간본은 현전하는 자료가 많지 않아 특히 초기의 연구자들은 만력본을 주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기문(1962ㄱ), 이현희(1993) 등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龍歌故語箋』은 순치본 『龍飛御天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치본에 서만 드러나는 다음의 변개가 『龍歌故語箋』에 인용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1) 가. 구든 城을 모르샤 값 길히 엷더시니 <제19장>

나. 역토시고 쏘 기괴시니 <제20장>

다. 뒤혜는 모던 졸심 <제30장>

라. 눈 골더니이다 <제50장>

마. 저근 선비를 보시고 <제82장>

(1가)는 원간본에 ‘입더시니(迷)’로 되어 있는 것을 ‘엷더시니’로 고쳐 놓은 것이고 (1나)는 원간본의 ‘녀토-’를 ‘역토-’로 고친 것으로 이들 변개는 1659년 간행된 순치본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다. (1다, 라, 마)는 각각 원간본

의 ‘중상’, ‘눈 곧 디니이다’, ‘허근’을 고쳐놓은 것으로 역시 순치본에서부터 보이는 변개이다. 이를 통해 『龍歌故語箋』에서는 순치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 3) 『龍歌故語箋』의 주요 내용

위에서 밝혔듯이 『龍歌故語箋』에는 중세한국어 문법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sup>11)</sup> 어휘와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음운·형태와 관련된 것 중 주요한 것들만 열거하면 <표 1>과 같다.

<표 1> 『龍歌故語箋』의 음운론·형태론 관련 주요 내용

내용	분야	장	내용	분야	장
{-시-} 앞 매개모음의 특이성	음운	1	모음조화의 붕괴	음운	1
연결어미 {-니} = {-니} + {이}	형태	1	반말 = 중간 등급	형태	1
어두자음군	음운	2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분석	형태	2, 20
‘꽃’과 ‘곳’의 차이	형태	2	형용사에 결합하는 ‘-느-’	형태	2
ㅎ 말음 체인	형태	2	사이시옷의 이형태	형태	4
반과거의 ‘-거/어-’	형태	4	부정법 ‘-음’	형태	4
동사 어기의 설정	형태	4	‘-오라’ > ‘-도다’	형태	4
‘-오-’ 선행어미 ‘-ㅁ, ㅅ’	형태	4, 13	{-시-}와 {-어} 결합의 특이성	음운	1
강한 ‘ㄹ’과 약한 ‘ㄹ’	음운	5	{-오, 소}의 전신인 경어조사 {-습-}	형태	5
고형의 조사 ‘나, 르’와 신형 ‘는, 를’	형태	7, 24	관형격 조사 ‘ㅣ’	형태	7
‘-더시/거시-’의 어순	형태	8	/빙/의 음가는 /ㅍ/와 같은 것.	음운	16, 90
‘흐느료’ = ‘흐 + 으료’, ‘허거늘’ = ‘허건 + 을’	형태	11	타동사를 만드는 ‘-이/히-’, ‘-오/우-’	형태	12
{-마르} = 말-(止) + -은	형태	17	‘어느’의 다양한 용법	형태	18
두 종류의 ‘-어시-’	형태	21	‘너-(行)’의 ‘-거/어-’ 앞 이형태 ‘니-’	형태	38
‘-거/어-’의 ‘오-(來)’ 뒤 이형태 ‘-나-’	형태	38	과거의 선어말어미 ‘-아-’	형태	42
‘잇-’의 모음 앞 이형태 ‘이시-’	형태	45	‘-던텐’의 형태 분석	형태	51

11) 『龍歌故語箋』에는 『대명률직해』, 『금강경언해』, 『몽산법어』, 『두시언해』, 『훈몽자회』, 『유합』, 『역어유해』, 『한불자전』 등이 인용되어 있다.



‘니거지이다’의 형태 분석	형태	58	‘무으-’ = ‘뫼-’ + ‘-우-’	형태	71
‘난-’(起)	형태	82	‘느지르샷다’는 ‘느지로샷다’의 음변	형태	100
‘되시-’의 ‘-시-’의 공시론과 통시론	형태	109	평칭 호격 ‘야’와 경칭 호격 ‘하’	형태	125

음운·형태에 관한 설명은 앞 장에 몰려 있고 뒷장은 어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많은 음운·형태론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1>에 포함된 내용은 정확한 분석도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것도 존재한다.

이처럼 방대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龍歌故語箋』의 국어사적·언어학적 의의 평가는 이현희(1993)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龍歌故語箋』에서 제시한 분석 중 후대에 문제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본고가 뒤에서 다룰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ь』의 소개에 방점을 둔 만큼, 이 부분들을 『Материал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여 『Материаль』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龍歌故語箋』에는 하위 분야의 구분이 없으나 『Материаль』의 체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음성학

### ① 두 개의 ‘ㄹ’

마에마는 중세한국어에 두 개의 ‘ㄹ’이 있다고 보았다. ‘ㄴ, 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ㄹ’은 약한 ‘ㄹ’이고 ‘ㄹ’ 밑에 ‘·’가 더 있는 ‘ㄹ’은 탈락하지 않는 강한 ‘ㄹ’로 보았다. 이 때 ‘·’는 형태만 있는 일종의 발음 구별 부호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여ㄹ’와 ‘여ㄹ(諸)’ 등의 단어에서 ‘ㄹ’ 아래에 ‘·’와 ‘-’가 모두 적혀 나온다는 것이다.<sup>12)</sup> 두 개의 ‘ㄹ’ 설은 류창선(1947)에서도 보이고 『Материаль』에서도 또한 같은 방식의 기술을 하였다.

12) 이것이 / ㄹ /의 음가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기문(1977) 참조.

## ② ‘빙’의 음가

‘빙’의 음가를 /w/로 보았다. 제90장의 ‘계우니’는 현대어에서 제1, 2, 3어기가 각각 ‘꺄, 꺄위, 꺄우’이므로 \*‘계브니’로 적혀야 할 것이나 ‘계우니’로 적혔기 때문에 ‘빙’이 이미 15세기 중엽에 명확히 발음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제16장에서 (비록 형태소 분석은 잘못된 것 같으나) ‘운브리’의 어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빙’과 ‘ㅍ’의 발음이 대차 없었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13)</sup>

## (2) 형태론

## ① 연결어미 ‘-(으)니’, ‘-거늘’, ‘-마른’ 등의 분석

마에마는 연결어미 ‘-니’를 관형사형 어미 ‘-ㄴ’에 형식명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거늘’은 선어말어미 ‘-거-’에 관형사형 어미 ‘-ㄴ’, 조사 ‘-을’이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마른’은 ‘말-(止)’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통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어원적 의식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어진 것이다. 홀로도비치도 부분적으로 이 분석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② 종결형에 사용되는 ‘-니, 리’

『龍飛御天歌』에서 문장 종결에 사용되는 ‘-니, 리’를 종결형식 ‘-이다’가 생략된 형태로 보고, 중간 등급의 경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홀로도비치도 이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류창선(1947), 방종현(1947)은 반말형에 대해 보다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기 위한 형식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 ③ ㅎ 발음 체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표면에 드러나는 ‘ㅎ’을 가진 체언의

13) 짧은 기술이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90장의 기술(‘빙音はすでに次頃にも明確に發音せられなかつたことが分かる.’)은 마에마가 ‘빙’이 /w/가 아닌 본래의 음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음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목록을 들고 있다. 마에미는 이런 부류의 체언에 대한 인식을 『韓語通』(pp. 37~38)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ㅎ’은 어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14)</sup> 그런데 이후에 나온 양주동(1942), 류창선(1947), 방종현(1947년) 등에서는 일부 체언 뒤에서 조사가 ‘이’에서 ‘히’로 바뀌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김형규(1959)에서도 보인다.

#### ④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어간 교체를 하는 소위 특수 어간(이기문 1962년; 유창돈 1962)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ㄹㅇ’형, ‘△ㅇ’형, ‘ㄹㄱ’형, ‘ㄴㄱ’형이 모두 특이한 활용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름의 설명을 피했으나 이들이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ㄹㄱ’형은 한국인이 ‘ㄹ’ 뒤에 ‘ㄱ’을 덧붙여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거나 ‘노르’의 주격형이 ‘놀이’인 것을 ‘쁘’가 ‘뻐’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반과거의 {-거-}와 과거의 {-아-}

선어말어미 ‘-거-’가 /ㄹ/이나 /ㅣ/ 뒤에서 ‘-어-’로 교체하고 이것이 ‘오- (來)’ 뒤에서 나타나는 ‘-나-’와 같은 형태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 형태소를 반과거(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어-’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형태로 보지 않고 과거의 형태소로 보았다. 또한 ‘-어시-’라는 형태는 이 형태소와 존칭의 ‘-시-’가 결합한 것과 연결어미와 용언 어간 ‘이시-’가 결합한 것 두 종류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 ⑥ 청자 높임의 어미 {-습-}

마에미는 {-습-}을 청자 높임의 어미로 보았다. 이는 근대한국어 시기의 ‘-읍-’과 중세한국어의 {-습-}에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이다. 이 오류는 오구라(1938), 김형규(1960) 등으로 이어졌다

14) 이는 索引에 제시된 어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⑦ 어기 설정

『龍歌故語箋』은 한국어의 용언 어간을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에 따라 분류한 ‘어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연구이다. 이 ‘어기’는 일본의 조선어 학계에서 한국어의 용언을 기술하는 데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의 4.3.2.의 4)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⑧ 기타

종결어미 ‘-(으)니’ 등의 분석에서도 보았지만 마에마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형태소 분석하고 다른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지으려 하였다. 예를 들어 ‘잇-(有)’은 모음 어미 앞에서 ‘이시-’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ㅣ’가 첨가되는 것은 ‘흐-(爲)’가 모음 어미를 만나면 ‘ㅣ’가 덧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보았다. 또 ‘여리-(軟)’는 ‘얇-(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스그불’의 ‘스’는 ‘식어미’의 ‘식’와 같은 것으로서 外를 의미한다고 보거나 ‘니-(行)’ 뒤에는 언제나 ‘-거-’가 오지 ‘기’이 탈락한 형태인 ‘-어-’가 오지 않는데, 이는 ‘-시-’ 뒤에서 ‘기’이 탈락하지 않은 ‘-거-’가 오는 것과 같은 성격의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한편 ‘피시-’에는 어원적으로는 ‘-시-’가 관련되어 있으나 ‘피셔’로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시기에는 이 ‘-시-’를 존칭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무우-’의 형태소 분석을 잘못했다거나 ‘느지르샷다’를 ‘느지로샷다’의 음변(音變)으로 봤다거나<sup>15)</sup> 선어말어미 ‘-오-’와 ‘-다’의 결합인 {-오래}를 감탄형 ‘-도다’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오류 등도 많이 있다. 『龍歌故語箋』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이현희(1993:114-115)에 더 많은 예가 제시되어 있다.

15) ‘느지르샷다’의 ‘-르-’는 소위 회상법의 선어말어미 ‘-더-’의 이행태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허웅(1956)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나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차차 표기 자료를 통해서이다(남풍현 1987 참조).

#### 4.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 1) 발간 경위와 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유럽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1897년 민영환의 통역사였던 민경식과 김병옥을 한국어 강사로 초빙하여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아마 유럽에서 최초로 중세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대학일 것이다. 1947년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고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강의들이 개설되었다. 그 중에는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이라는 이름의 과목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6)</sup> 이 수업은 당시 한국어문학과에서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 수업을 담당하던 홀로도비치가 진행했다. 이 수업의 내용은 <표 2>와 같았다.<sup>17)</sup>

<표 2>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 강의 개요

총 시수	주제	주제별 시수	내용
42시간	일반론	6시간	1. 중세한국어의 정의 2. 한글 창제의 역사, 한글 창제의 목적 3. 중세어 문헌(주로 용비어천가) 요약 4. 중세한국어 문헌의 분류
	음성학	18시간	1. 중세한국어의 음운 체계 2. 모음 체계, 모음의 변화 3. 이중모음 체계 4. 모음 체계의 변화 5. 자음 체계 6. 자음 체계의 변화 7. 음절 구조 8. 모음조화 9. 모음조화의 역사
	형태론	12시간	1. 체언: 격 체계, 비자동적 교체, ㅎ 말음 체언, 후치사 2. 용언: 어기, 불규칙 용언, 어미
	실습	6시간	강독: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금강경, 두시언해

16)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문학 교육에 관해서는 김태우(2021)을 참조할 수 있다.

17) 이 표는 김태우(2021:49)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ы』은 이 수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완성된 원고로 보인다. 이 논문은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홀로도비치의 15세기 한국어 연구 원고를 콘체비치 교수가 다시 편집한 것이다. 홀로도비치는 1962년 레닌 그라드 언어학 연구소 소장이 되어 한국학과를 떠나면서 해당 수업을 맡게 될 라치코프 교수에게 한국어 연구와 관련된 원고 몇 박스를 넘기고 떠났다. 『Материалы』의 초고는 이 원고 더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Кончевич 1986:3~7). 콘체비치 교수가 홀로도비치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하여 이 원고를 복원·편집하여 발간한 것이 『Материалы』이다. 몇몇 결장은 보빈 교수가 가지고 있던 원고를 보충하여, 최종적으로 음성학 15쪽, 형태론 53쪽,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 수업 개요 7쪽 분량의 논문으로 복원되었다. 약 25,00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논문보다는 작은 책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Материалы』에서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 현상을 보이는데 인용한 모든 자료는 『龍飛御天歌』에서 가져온 것이다.

『Материалы』의 차례는 <표 3>와 같다.

<표 3> 『Материалы』의 차례

	음성학	형태론	
각 컴퓨터의 내용	1. 마찰음	A. 명사	B. 동사
	2. 파열음	1. 품사	16. 서술어의 어근
	3. 공명음	2. 격 범주	17. 어간의 유형
	4. 모음과 이중모음	3. 주요격(무표격)	18. 파생 어간과 비파생 어간
	5. 음운 변화	4. 주격	19. 불규칙 동사
	6. 변이음(구개자음과 비구개자음)	5. 대격	20. 제4어간의 기능
	7. 음운 변동	6. 도구격	21. 교체 어간
	8. 어근의 음운 구조	7. 공동격	22. (주체) 겸양 접사
		8. 속격-여격	23. 공손 접사
		9. 부각 접사 '은/는'	24. 시제 접사
		10. 비자동격 교체 어간	25. 양태 접사
		11. 사이시옷	26. 전접 접사
		12. 명사의 서술어형	27. 잇-/이시-
		13. 체언 어간 말음의 교체	28. 부정사 어미
		14. 명사 파생	29. 부동사 어미
	15. 후치사	30. 관형사형 어미	
		31. 서술(종결) 어미	
		32. 서술어의 구조	
		33. 부동사와 같은 형태의 종결형	
		34. 부정	
		35. 의존 명사	

전체적인 체계를 음성학과 형태론으로 나누고, 형태론을 다시 명사와 동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체계는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문법서인 『한국어 문법: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Материалы』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강의 개요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Материалы』은 ‘중세한국어의 문법과 음운’의 수업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 수업과 『Материалы』이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이 원고는 ‘중세한국어의 음운과 문법’ 수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1940년대 후반에 착수되어 1950년대 초반, 늦어도 1950년대 중반에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표 2>는 1959년에서 1960년 사이 홀로도비치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형태론’에 대한 기술은 1953년 6월 1일자 원고의 수정본이라고 한다. 이 말은 『Материалы』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론에 대한 내용이 1953년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홀로도비치(1960)에 중세한국어 강의록이 활자화 중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할 때, 이 원고의 내용은 1950년대 초중반에 완성된 것이고 만약 1950년대 후반에 원고가 수정되었다면 그것은 수업의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홀로도비치가 한국어문학과를 떠난 후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조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는 홀로도비치(1963)이 있는데 한국어 자료가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언어학적 연구이지 한국어 연구라고 볼 수 없으며, 홀로도비치(1960)에서 1961년 집필 예정이라고 한 『한국어 통사론』이 결국 발간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홀로도비치는 1960년 이후 한국어 연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Материалы』에서 주로 참고한 논저로 『龍歌故語箋』과 류창선(1947 ㄱ-ㄴ)만을 들고 있는 것도 『Материалы』의 원고가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195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에

서는 류창선(1947ㄱ-ㄴ) 이후 처음으로 『龍飛御天歌』의 모든 장을 어학적으로 분석한 허웅(1956)이 나오게 된다.<sup>18)</sup> 그런데 『Материалы』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물론 허웅(1956)을 참조하지 못한 것이 당시 냉전 중이었다는 사회·정치적 제약 때문일 수도 있으나 원고가 1956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Материалы』은 이 시기까지 발간된 『龍飛御天歌』에 대한 다른 연구서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龍歌故語箋』을 비롯하여 해방 후 나온 『龍飛御天歌』의 연구서는 주석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들은 『龍飛御天歌』의 각 장을 바르게 읽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龍歌故語箋』과 방중현(1947~1949)가 『龍飛御天歌』의 어학적인 면에 집중을 한 주석서라면 이상춘(1946)과 김성철(1948)은 역사적 사실에만 집중한 주석서이고, 류창선(1947ㄱ-ㄴ)은 둘 모두를 다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이들은 『龍飛御天歌』를 올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방점이 찍힌 연구들로, 『龍歌故語箋』을 대체하기 위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Материалы』은 『龍飛御天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비록 홀로도비치의 서문에서 “이 연구는 최초의 문학 작품인 『龍飛御天歌』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책의 체계를 보면 『Материалы』의 실제 목적은 중세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문법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龍飛御天歌』의 텍스트가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Материалы』에는 다른 『龍飛御天歌』 연구서와는 달리 필요한 부분에서 『龍飛御天歌』를 인용하고 있을 뿐 『龍飛御天歌』의 각 장에 대한 번역이 실려 있지 않다. 즉, 이 책에서 『龍飛御天歌』는 중세한국어 연구의 도구였던 것이다.

18) 방중현(1947~1949)에 대한 언급도 없다. 『진단학보』에 실린 김수경(1947)의 논문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에 실린 방중현(1947~1949)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중현(1947~1949)에는 『龍飛御天歌』의 제7장까지만 주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 2) 판본

다음과 같은 예는 홀로도비치가 『龍飛御天歌』의 어떤 판본을 보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sup>19)</sup>

- (2) 가. Кар ? кирх-и элтэсин и, сй ой н ханапи-рэр ханарх-и пьрисин и  
(갈 길- | **업더신** |, 센 하나비-를 하늘- | 버리신 |) <제19장>
- 나. **нотхо-** (여토-) <제20장>
- 다. Най нимкым кырысй а хукун,-ой тырысыр?чой ханар с пй ор-  
и нун **мәттөн н нта** (내 님금 그리샤 後宮-에 드르실 제 하늘  
별- | **눈 끈던** | 이다) <제50장>

이들은 (1)에서 본 것처럼 순치본에서 처음 드러난 변개이다. 이를 통해 『Материалы』에 인용된 『龍飛御天歌』의 판본은 순치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순치본의 변개와 관련된 부분은 『Материалы』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건륭본의 변개인 제78장의 ‘쫓줍고저’가 ‘쫓줍고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치본을 이용한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2다)의 바로 뒤에 나오는 번역이 “звезды словно снег падали с неба(별이 눈 같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가)의 번역이 “Негде бьлю прой ти(갈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과 분명히 /r/에 해당하는 ‘o’로 전자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다)의 번역은 의역 과정에서 우연히 맞아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해 볼 여지가 있다. 한 가지는 『龍歌故語箋』에서 이용된 판본이 순치본이라는 사실이다. 『Мате

19) (2)에 제시된 러시아어 전자 표기는 홀로도비치의 형태론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으)니’가 관형사형 어미 ‘-(으)ㄴ’에 형식명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마에마의 것과 같다. 관형사형 어미 ‘-ㅁ’에서 ‘ㅎ’을 성문을 표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4.3.2.의 (9) 참조).

риаль』에는 방점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음성학과 음운론에 대해 따로 한 장을 마련한 『Материаль』에서 방점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홀로도비치가 『龍飛御天歌』의 영인본 등을 이용하지 않고 『龍歌故語箋』에 실린 『龍飛御天歌』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龍歌故語箋』에는 방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Материаль』에는 방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Материаль』에 반영된 변개는 『龍歌故語箋』이 순치본을 저본으로 저술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Материаль』이 많이 참고했다고 밝힌 류창선(1947 ㄱ-ㄴ)에 수록된 『龍飛御天歌』는 그 변개 양상이 독특하다. (2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업더시나’라고 되어 있고 “없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2나, 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녀토-’, ‘눈근 디니이다’로 되어 있어 원간본 계통의 특성을 보인다. 또 제21장은 ‘갈히이시나’로 되어 있어 만력본을 옮긴 것처럼 보이나 만력본의 오자가 있다고 알려진 제27장의 ‘常例 아니샤’, 제33장의 ‘울어시늘’, 제34장의 ‘말 툰 자히’, 제48장의 ‘자브시나’, 제87장의 ‘대뵈’ 등은 원간본의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갈히이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예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오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므로(이호권 2019) 류창선(1947 ㄱ-ㄴ)은 만력본을 수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Материаль』에서 ‘눈 근디니이다’로 적히고 ‘눈과 같이 떨어지다’라고 번역이 된 것은 『龍歌故語箋』의 자료를 저본으로 쓴 상태에서 번역은 류창선(1947 ㄱ-ㄴ)의 것을 참고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龍歌故語箋』의 『龍飛御天歌』를 수록하면서 류창선(1947 ㄱ-ㄴ)의 번역을 참고한 것은 『龍歌故語箋』에 장 전체의 번역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3) 내용

『Материаль』은 음성학과 형태론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성학

에는 홀로도비치의 다른 문법서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 음운 현상과 통시적 음운 변화까지 다루고 있다. 형태론에서는 중세한국어의 다양한 형태소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홀로도비치의 다른 문법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용언의 이형태 교체를 다루고 있다. 『Материаль』의 내용을 흥미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음성학

### ① 음소 목록

6개의 마찰음(ㅃ, ㅅ, ㅆ, ㅈ, ㅊ, ㅍ)과 8개의 파열음(ㅁ, ㅂ, ㄷ, ㅌ, ㅊ, ㅌ, ㅋ, ㆁ), 4개의 공명음(ㅁ, ㄴ, ㅇ, ㄹ)으로 이루어진 자음 체계로 보고 있다. /ㅃ/은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음가는 /w/로 추정하였다. 이는 /ㅁ/이 약화된 것인데 다른 음소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ㅈ/은 유성음 /z/로 보았다. 파열음에 경음 계열을 설정하지 않고 무기음과 유기음의 2지 대립 체계로 보고 있다. 또한 /ㄹ/에 대해서는 『龍歌故語箋』을 따라 강한 /ㄹ/과 약한 /ㄹ/의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한 /ㄹ/은 /ㅁ, ㅂ, ㄱ/ 이외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또 ‘나리 > 내(川), 서리 > 사이(間)’ 등의 예도 함께 들고 있다.

중세한국어 자음은 변이음으로 구개 자음과 비구개 자음 두 가지를 가진다고 보았다. 현대한국어에서는 /ㄷ, ㅌ, ㅅ, ㅆ/은 변이음으로 구개 자음을 가지지 않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들도 모두 구개 자음을 변이음으로 가진다고 하였다. 구개 자음이 나타나는 환경을 /j/와 /i/ 앞으로 보았다. 그런데 현대어에서 /ㄷ, ㅌ, ㅅ, ㅆ/이 구개음 변이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술은 흥미롭다. 이는 홀로도비치가 주로 만난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47년 가을 레닌그라드 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는 20명(또는 21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즉 고려인들이었다(김태우 2021:45 참조). 고려말은

구개음화와 파찰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킹·연재훈 1992: 96). 현재는 이런 경향이 조금 약해졌다고 하지만 1920년대 출생자들일 홀로 도비치의 학생은 이들 자음의 구개음 변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sup>20)</sup> 다만 /ㅅ/은 구개음 변이음이 있다고 하는데(킹·연재훈 1992:94)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모음 체계는 7개의 단모음과 상·하향 이중모음을 설정하였다. 중세한국어 하향 이중모음의 존재는 오구라(1923), Поливанов(1927), Ramstedt (1928) 등에서 암시되었고 이어 방언 연구를 통해 오구라(1940, 1944), 고노(1945) 등에서 재구되었다. 중세한국어의 문헌을 통한 실증적 논의는 조금 뒤인 이승녕(1949), 허웅(1952) 등에서 이루어졌다.<sup>21)</sup> 『Материалы』에는 중세한국어에 하향 이중모음을 설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나 일본인과 폴리바노프, 램스테트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 ② 음운 변화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에서 일어난 네 가지 동시적 음운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음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 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섯 가지 변화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가 제1음절에서는 /ㅏ/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ㅡ/로, 순음 아래에서는 /ㅓ/로, 어말 개음절에서는 /ㅓ/로 변한다. 이와 같은 /·/의 변화로 인해 모음조화가 혼란스러워졌다.

둘째, 순음 아래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셋째, 두 개의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의 /ㅎ/이 탈락했다. ‘불휘>뿌리’, ‘싸호- > 싸우-’ 등의 예를 들고 있으며 예외로 ‘사울 > 사홀’, ‘마순 > 마훈’을 들고 있다.

넷째, 경음화·격음화가 일어났다. 경음화·격음화는 변화가 일어난 환

20) 한국어 북부 방언에서 /ㄷ, ㅌ/이 구개음 변이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술은 홀로도비치(1954)에도 나타난다.

21) 하향 이중모음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봉국(2010)을 참조할 수 있다.

경·원인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어두자음군(숨 > 꿈, 썰 > 딸), 2) 어중 /ㅎ/ 탈락에 대한 보상(불휘 > 뿌리, 갓 > 칼), 3) 어간말자음군의 영향(겨- > 귀- > 꺾-), 4) 원인 미상(곶 > 꽃).

다섯째, 모든 하향 이중모음은 단모음화하였다.

### ③ 음운 과정

/ㄱ/ 약화와 /ㅎ-/ 축약으로 인한 유기음화를 중세한국어의 공식적인 음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ㄱ/ 약화의 예외로 ‘즐기거든’, ‘니거-’을 들고 있다. 모음조화는 개모음과 폐모음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는 이승녕(1949)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현대어와 달리 『龍飛御天歌』 시기에는 음절말에서 장애음 계열의 중화, 즉 평파열음화가 없었고 그보다 조금 후에 평파열음화가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널리 알려져 있듯 『龍飛御天歌』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형태음소적 표기를 택한 문헌이며, 또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두 개의 문헌이다. 따라서 이후의 문헌과는 달리 음절말 중성이 형태를 살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도비치는 시기적으로 평파열음화가 후대에 발달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곶’과 ‘곶’을 표기법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본 마에마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 ④ 어근의 음운 구조

중세한국어 어근의 음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홀로도비치(1954)에서 현대한국어에 대해서도 행했던 작업이다. 『Материалъ』에 제시된 중세한국어의 어근의 음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龍飛御天歌』의 대부분의 단어는 1음절 또는 2음절이다. 3음절 단어는 대략 30개 정도인데 이들은 1, 2음절 복합어인 경우가 많다.

둘째, 어두자음군이 있다. 『龍飛御天歌』에 드러나는 어두자음군은 ‘ㅃ, ㅃ, ㅃ, ㅃ, 시, ㅆ, ㅃ, ㅆ’인데 다른 문헌까지 합하면 ‘ㅃ, ㅃ, ㅆ, ㅃ’이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세한국어 문헌에서 ‘ㅃ’ 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간

본 문헌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말자음군이 있다.

넷째, ㅎ 말음 체언이 있다. 이들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하며, 보통 이 ‘ㅎ’을 격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어근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류창선(1947 ㄱ-ㄴ), 양주동(1942) 등에서 ‘ㅎ’을 조사 쪽으로 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홀로도비치가 ‘ㅎ’을 어근 쪽으로 포함시킨 이유가 흥미롭다. 홀로도비치는 용언에 ㅎ 말음 어간이 있으므로 체언에도 ㅎ 말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홀로도비치(1937)에서 현대한국어의 어간 유형을 설정할 때도 사용된 것이다.

다섯째, 모음조화를 지킨다. 『용비어천가』를 통틀어 보았을 때 모음조화를 어기는 예는 9예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목숨, 엇막다 등)는 복합어이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일부(어느 ~ 어느, 글쫄 ~ 글월)는 『용비어천가』 내에서나 다른 문헌과 비교했을 때 불규칙한 어근이라고 하였다.

## (2) 형태론

### ① 격 체계

어간격(∅), 주격(이, ㅣ), 대격(을/를/을/를/르), 도구격(로/으로/으로), 공동격(와/과), 속격/여격(애/에/이/의/예)의 6격을 설정하고 있다. 진정한 속격/여격은 /ㅣ/이고 선행하는 /·, -/는 매개모음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내, 네’ 등 인칭대명사의 속격 형태와 속격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ㅣ/, /·, -, ㅣ/로 끝나는 체언의 속격 형태, 현대어에서 일부 ‘나’의 발음이 [e]로 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첫 세 가지는 이미 『龍歌故語箋』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 -/가 매개모음일 수 있다는 것은 홀로도비치 자신의 생각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논의는 허웅(1975)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격체계와 함께 각각의 격이 문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간격을 취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비교어,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식이다.<sup>22)</sup>

‘ㄴ/는/은/은/ㄴ’을 기지(既知)의 정보를 표시하는 첨사<sup>23)</sup>로 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은/는’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 바 있다(김태우 2020ㄴ 참조).

## ② 비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를 하는 두 유형의 어간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모/무’로 끝나는 어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음 ‘·, ㅡ, ㅣ’로 끝나는 어간이다. 3.3.2의 ④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인식은 『龍歌故語箋』의 것과 같다. 다만 마에마는 ‘모/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나타나는 ‘ㄱ’이 어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데 반해 홀로도비치는 ‘ㄱ’이 어근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동일한 유형의 어간이 용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 ③ 삽입자음

사이시옷에 대해 ‘삽입자음(промежуточные графемы)’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김수경(1947)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홀로도비치는 삽입자음의 다양한 이형태를 소개하고 그 기능이 두 개의 명사 사이의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삽입자음이 문법적으로 ‘속격/여격’이라고 보아야 할지 합성명사 표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음운론적으로는 어떤 소리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어에 유추해 생각하자면 삽입자음은 경음 표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공명음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공명음 앞에서는 공명음의 중첩 표지, 모음 앞에서는 성문폐쇄음 표지로 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Материалы』의 자음 체계에 경음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관형사형 어미 ‘ㅈ’의

22) 홀로도비치(1954)에서도 같은 기술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러시아어 문법의 기술 방식으로 보인다(김태우 2020ㄴ 참조).

23) 정확히는 소사(частица)로 보았다. 이는 러시아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강조·부정·의문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변어·비자립어를 말한다. 자세한 것은 최지영(2016:393~394) 참조.

24) 김수경(1947)은 삽입자음을 후행 자음의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ㅎ’도 같은 성격의 삽입자음으로 보고 있다.

#### ④ 동사의 어간

『Материалы』은 동사의 어간(основа) 설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龍歌故語箋』과 동일하다. 어간은 인구어의 어간 형성 모음(thematic vowel) 설정을 일본어와 한국어에 적용한 것으로 『龍歌故語箋』에서 ‘어기’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단위이며 홀로도비치는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 기술에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up>25)</sup> 본래 일본어학자였던 홀로도비치는 일본어학에 친숙했기 때문에 어간 개념을 일본어학계로부터 가져온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홀로도비치의 어간 체계가 『龍歌故語箋』에서 차용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김태우(2020-)에 지적된 것처럼 명칭은 물론 순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표 4〉 마에마, 홀로도비치, 고노의 형태·음운론적 어간 비교

	『龍歌故語箋』	홀로도비치(1937)	『Материалы』	고노(1948)
제1어간	잡	잡	잡	잡
제2어간	자바	자브	자브	자브
제3어간	자보	자바	자바	자바
제4어간	자브		자보	자보

〈표 4〉에서 드러나듯 『Материалы』의 어간은 『龍歌故語箋』이 아니라 고노(1948)의 것과 같다. 시기적으로 『Материалы』이 고노(1948)을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홀로도비치의 어간의 순서는 현대한국어 문법서인 홀로도비치(1937)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로 간의 영향 관계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25) 홀로도비치(1937)에서는 일본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기(база)’라는 술어를 사용했으나 홀로도비치(1954)부터는 같은 단위를 어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위의 언어학적 의미는 김태우(2020-) 참조.



『龍歌故語箋』에는 ‘자보’가 ‘자브’에 비해 어세가 조금 더 강하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는 표현이라고 했으나 홀로도비치는 ‘자보’가 부정사 ‘-ㅁ’과 동명사 ‘-디’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자브’와 의미 차이가 없는 형태로 보았다.

한편, 어간 형성의 규칙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 어간을 가진 불규칙 용언(Неправильные предикативы)을 설정하고 ‘ㅎ-, 잇-, 없-, 거시-’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sup>26)</sup> 표면형의 교체가 있는 ‘저- ~ 것-’과 같은 교체 어간(Чередование предикативных корней)을 설정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龍飛御天歌』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 좇-’ 등은 교체 어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⑤ 피·사동 접미사

홀로도비치(1954)에서도 그러했지만 홀로도비치는 한국어에서 피·사동 접미사를 ‘동사들 사이의 파생 관계를 나타내는 접미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접미사는 자동사를 타동사로 만들기도 하고 타동사를 접미사로 만들기도 하는, 타동성 교체 접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피·사동 접미사의 동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자동사에 이 접사가 결합하면 타동이나 기동의 의미를 가지고 타동사에 결합하면 기동이나 자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타동성 교체 접사는 기본적으로 ‘-이-’와 ‘-오/우-’가 있으며 특별히 ‘사르-’에 결합하는 ‘-으-’가 있다고 보았다.<sup>27)</sup> ‘-이-’의 이형태로 ‘-기-’와 ‘-히-’를 설정하였는데 ‘-기-’는 /스/ 뒤에서 나타나고 ‘-히-’는 /스/ 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ㅁ/ 뒤에서도 ‘-기-’가 나타나는데 이때 ‘기’는 어간에 속한 것이고 결합되는 접사는 ‘-이-’로 보았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ㅁ/ 뒤에서 /기/을 첨가하는 버릇이 있다는 마에마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26) 이는 『龍歌故語箋』에서 예외로 처리한 네 개의 단어이다.

27) 『龍歌故語箋』에서는 ‘사르-’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살리-’의 어근으로 보았다. 즉 ‘사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살리-’가 된 것으로 본 것이다(제22장).

## ⑥ 주체 겸양의 형태소

『龍歌故語箋』에서 청자 높임과 관련된 형태소라고 보았던 {-습-}을 주체 겸양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습-}이 서술어에 결합하면 서술어의 주어(подлежащим)가 더 낮은 사회적 서열에 있음을 표시한다고 본 것이다. 『龍歌故語箋』의 {-습-}에 대한 견해가 고쳐지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의 허웅(1954)부터로 본다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허웅(1954)와는 독자적으로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Материалы』에서 {-습-}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sup>28)</sup>

또 현대어의 종결어미 ‘-오/소’가 {-습-}의 활용형에서 종결어미가 탈락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龍歌故語箋』 5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종결형식이 삭제된 비한정(non-finite) 형식이 한정(finite)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⑦ 중세한국어의 시상 범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마에미는 『龍歌故語箋』에서 ‘-거(어)-’는 반과거(일의 완료)의 형태소, ‘-아-’는 과거의 형태소라고 보아 둘 사이의 이형태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 『Материалы』에서는 ‘-거-’와 ‘-아/어-’리는 두 개의 형태소를 설정하고 모두 ‘과거 완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같은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본 것 같지는 않다. ‘-아/어-’는 모음조화에 따라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하는 것이고 ‘-거-’는 음운 규칙인 ‘ㄱ 약화’ 규칙에 따라 ‘-어-’와 음운론적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첨사 ‘ㄴ’ 또는 ‘ㅅ’와 결합할 때는 어기가 단어의 지위, 즉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흥건, 하거사).

‘-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더-’는 과거 미완료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sup>29)</sup> 완료의 의미는 ‘-어 잇-’에 의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28)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9) 여기에서 ‘미완료(незавершенного)’라는 것은 다른 사태가 발생하여 과거에 일어난 다른 사태가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동사의 의미에 따라 행위 완료(과거의 행위)나 상태 완료(과거 행위의 결과 상태)를 뜻한다고 했다.<sup>30)</sup>

#### ⑧ 그 외 접사 및 어미류

‘ㅅ’를 전접어(Приаффиксальная частица; enclitic)로 보고 ‘-거-, -어/아-’ 뒤에서 사용되어 앞 동사의 사태가 완료된 후 뒤 동사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또 ‘-ㅁ’을 언제나 제3어간 뒤에 나타나는 부정사 어미(Окончание инфинитива)로 보았다. 이는 현대한국어의 ‘-음’과 ‘-기’를 부정사 어미로 처리한 홀로도비치(1954)와 같은 것이며 『龍歌故語箋』과도 같다. 연결어미는 부동사 어미(Окончания деепричастия, 副動詞)로 보았다.<sup>31)</sup>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은 각각 분사 어미이며 의미는 직설법과 가정법이라고 보았다. 즉, 이들을 서법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ㄴ’은 수식의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격조사 앞(흐시느로, -거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⑨ 어말어미의 분석

『龍歌故語箋』과 마찬가지로 『龍飛御天歌』의 종결어미 구조를 ‘서술어 + 분사 어미 - ㄴ(ㄹ) + 형식명사 이 + 공손 형태소 + 어말어미’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세 가지 예외로 i) 의문 첨사 ‘-까’, ii) ‘올타’와 같이 서술어에 어미가 직접 결합하는 예, iii) 명령형을 들었다. 또 연결어미 ‘-(으)니’와 ‘-(으)리라’는 본래 종결어미인데 연결어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32)</sup> ‘-거늘’의 분석도 『龍歌故語箋』과 동일하다. 다만 마에미와 달리 홀로도비치는 이들이 공시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30) 이 기술은 고노(1946)의 ‘-어 잇-’에 대한 의미 기술과 아주 유사하다.

31) 연결어미를 부동사로 처리하는 것은 알타이 문법의 체계로 한국어 문법을 기술한 Ramstedt(1939)와 같다. 홀로도비치는 1951년 Ramstedt(1939)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홀로도비치가 한국어가 알타이 언어라는 사실을 믿어서라기보다는 러시아어 문법의 체계에서 한국어를 기술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32) 이는 종결형의 ‘-(으)니’를 연결어미와 같은 것으로 본 방종현(1947-)과 유사한 견해다.

『Материалы』에서는 예문을 제시할 때 (2)와 같이 연결어미 ‘-니’의 ‘-니’와 ‘이’를 띄어 적고 있다.

#### ⑩ 기타

‘씩’, ‘제’, ‘마른’, ‘딛’, ‘자히’ 등을 모두 형식명사로 보았다. 이 중 ‘마른’은 언제나 ‘-건/언/인’ 뒤에 나타나는데 ‘말(言)’과 보조사 ‘은’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龍歌故語箋』과 류창선(1947c)에서 이를 ‘말-(止)’과 관형사형 어미 {-니}의 결합으로 본 것과 대비된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 용언 어간말 ‘르’을 탈락시키므로 ‘-마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홀로도비치의 분석을 음미해 볼 만하지만 중세한국어에서 ‘-마른’의 성조가 LH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성으로 나타나는 ‘말’에서 도출될 수 없는 성조형이라는 문제가 있다.

## 5. 결론

『龍歌故語箋』은 한국어 옛말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간행되어 나온 중세한국어 연구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龍歌故語箋』은 한동안 한국어의 옛말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책이었을 것이다. 해방 이전은 물론 해방 직후까지도 국어사 연구에서 『龍歌故語箋』의 영향력은 아주 컸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에마가 한국의 옛말 연구자들에게 『龍歌故語箋』이라는 큰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어사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어 역사 문법에 투신하였으며 1960년대에 접어들며 우리의 국어사 연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7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마에마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교수인 홀로도비치는 『龍歌故語箋』을 교재로 하여 중세한국어를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부라기보다는 치

열한 연구에 가까웠다.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연구들을 참고하고 그가 접할 수 있는 다른 중세한국어 문헌들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Материалы』의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龍歌故語箋』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龍歌故語箋』의 오류를 바로 잡기도 하였다.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는 <표 1>에 제시된 『龍歌故語箋』의 중세한국어 분석을 『Материалы』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Материалы』의 기술이 『龍歌故語箋』과 동일한 부분이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Материалы』에서 『龍歌故語箋』의 기술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Материалы』은 『龍歌故語箋』을 단순한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발전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 비교

내용	분야	장	내용	분야	장
{-시-} 앞 매개모음의 특이성	음운	1	모음조화의 붕괴	음운	1
연결어미 {-내} = {-나} + {이}	형태	1	반말 = 중간 등급	형태	1
어두차음군	음운	2	비자동격 교체 어간의 분석	형태	2, 20
'꽃'과 '곳'은 표기법의 차이	형태	2	형용사에 결합하는 '-느-'	형태	2
ㅎ 말씀 체언	형태	2	사이시옷의 이형태	형태	4
반과거의 '-거/어'	형태	4	부정법 '-옵'	형태	4
동사 어기의 설정	형태	4	'-오랴' > '-도다'	형태	4
'-오-' 선행어미 '-ㅁ, ㅅ'	형태	4, 13	{-시-}와 {-에} 결합의 특이성	음운	1
강한 'ㄹ'과 약한 'ㄹ'	음운	5	{-오, ㅅ}의 전신인 경어조사 {-습-}	형태	5
고형의 조사 '나, ㄹ'과 신형 '느, ㄹ'	형태	7, 24	관형격 조사 '이'	형태	7
'-더시/거시-'의 어순	형태	8	/ㅁ/의 음가는 /ㅍ/와 동일.	음운	9, 16
'흐느료' = '흐 + 으료', '흐거늘' = '흐건 + 올'	형태	11	타동사를 만드는 '-이/히-', '-오/우'	형태	12
{-마뉘} = 말-(止) + -은	형태	17	'어느'의 다양한 용법	형태	18
두 종류의 '-어시'	형태	21	'녀-(行)'의 '-거/어' 앞 이형태 '니'	형태	38

'-거/어-'의 '오-(來)' 뒤 이형태 '-나'	형태	38	과거의 선어말어미 '-아-'	형태	42
'잇-'의 모음 앞 이형태 '이시'	형태	45	'-던덴'의 형태 분석	형태	51
'니거지이다'의 형태 분석	형태	58	'무으-' = '뫼-' + '-우'	형태	71
'닌-'(起)	형태	82	'느지르샷다'는 '느지로샷다'의 음변	형태	100
'피시-'의 '-시-'의 공시론과 통시론	형태	109	평칭 호격 '야'와 경칭 호격 '하'	형태	125

물론 홀로도비치는 연구사적인 측면에서는 마에마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중세한국어의 연구를 마에마보다 20~30년 정도 후에 했기 때문에 『龍歌故語箋』 이후 축적된 한국인과 일본인에 의한 중세한국어 연구를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외국인 연구자로서의 한계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어 문법 개요』를 쓰며 마련한 문법 체계를 중세한국어에 적용하여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중세한국어의 문법이 체계화된 최초의 연구를 통상 이승녕(1961)로 본다(안병희 1979:377). 『Материалы』은 이승녕(1961)만큼 치밀하지는 못하고, 이승녕(1961)만큼 방대한 예문을 이용하지는 못했으나 중세한국어의 음운론과 문법론을 기술한 최초의 문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Материалы』이 1980년대 가장 주요한 소련 간행물이라는 King(1991)의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Материалы』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20세기 초 한국학 지식의 전파 양상을 살필 수도 있었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소련의 옛 수도에서 1940년대 후반에 이미 현대한국어와 중세한국어, 그리고 고대한국어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김태우(2021)에서 다룬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중세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시작된 한국어 옛말의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당대의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우(20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홀로도비치는 마에마와 오구리는 물론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홍기문, 양주동 등의 연구도 이미 섭렵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홀로도비치의 『Материалы』은 당시 한국에서 옛말을 공부하던 한국인 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중세한국어 문법의 체계화를 이룩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봉국, 『하향이중모음의 연구사』, 『이중모음』, 2010, 33-52.
- 김성철, 『註解龍飛御天歌』(上, 下),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8.
- 김수경,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 『진단학보』 15, 1947, 476-494.
- 김태우, 『어기 개념의 고찰』, 『형태론』 22(1), 2020 ㄱ, 1-42.
- \_\_\_\_\_, 『A. 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한국어 문법: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2020 ㄴ, 265-296.
- \_\_\_\_\_,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의 성립과 A. A. 홀로도비치』, 『한국학연구』 60, 2021, 37-64.
- 김형규, 『국어사』, 백영사, 1959.
- \_\_\_\_\_, 『경양사와 “가” 주격토 문제』, 『한글』 126, 1960, 439-450.
- 남풍현,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에 대하여』, 『국어학』 16, 1987, 55-63.
- 류창선,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1)』, 『조선어 연구』 1(2), 1947 ㄱ, 119-144.
- \_\_\_\_\_,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2)』, 『조선어 연구』 1(3), 1947 ㄴ, 119-136.
- \_\_\_\_\_,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3)』, 『조선어 연구』 1(4), 1947 ㄷ, 114-137.
- \_\_\_\_\_,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4)』, 『조선어 연구』 1(5), 1947 ㄹ, 121-141.
- \_\_\_\_\_,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5)』, 『조선어 연구』 1(6), 1947 ㅁ, 154-176.
- \_\_\_\_\_,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끝)』, 『조선어 연구』 1(7), 1947 ㅂ, 158-183.
- 방중현, 『용비어천가 강의(1)』, 『한글』 12(2), 1947 ㄱ, 495-506.
- \_\_\_\_\_, 『용비어천가 강의(2)』, 『한글』 12(4), 1947 ㄴ, 4-16.
- \_\_\_\_\_, 『용비어천가 강의(3)』, 『한글』 13(1), 1948 ㄱ, 83-99.
- \_\_\_\_\_, 『용비어천가 강의(4)』, 『한글』 13(2), 1948 ㄴ, 147-164.
- \_\_\_\_\_, 『용비어천가 강의(5)』, 『한글』 13(3), 1949, 225-236.
- 안병희, 『국어학연구의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III.B.문법사의 연구』, 『관악어문연구』 4, 1979/1992, 369-377. [『국어 문법사 연구의 동향』,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68-175.에 재수록.]
-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42.
- 유창돈, 『쌍형어간의 배분활용 고찰』, 『아세아연구』 5(2), 1962, 185-217.
- 이기문,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제문제』, 『아세아연구』 5(1), 1962 ㄱ, 87-131.
- \_\_\_\_\_,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1962 ㄴ, 119-153.
- \_\_\_\_\_,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1977.
- 이상춘, 『註解龍飛御天歌』, 同和出版社, 1946.
- 이승녕, 『ㄱ · ㅋ · ㆁ의 음가 변이론』, 『한글』 106, 1949 ㄱ, 25-35.
- \_\_\_\_\_, 『모음조화 연구』, 『진단학보』 16, 1949 ㄴ, 7-115.
- \_\_\_\_\_, 『중세국어문법』, 1961, 을유문화사.
- 이현희, 『전간공작(1924)』, 『龍歌故語箋』, 『주시경학보』 11, 1993, 107-119.
- 이호권, 『규장각 소장 국어사자료의 정리와 관련된 몇 문제: 서지목록과 간년 추정을 중심으로』, 『규장각』 22, 1999, 173-192.
- \_\_\_\_\_, 『『龍飛御天歌』 판본의 변개와 그 해석—서지학과 국어사 연구의 관점에서—』, 『국어국문학』 186,



2019, 5-27.

전몽수, 『고어 연구(하)』, 『한글』 5(9), 1937, 41-43.

진태하, 『前間恭作(1925), 鷄林類事 麗言攷』, 『주시경학보』 9, 1992, 133-148.

최지영,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 사용 양상 연구—홀로도로비치와 마주르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0, 2016, 387-402.

허 웅, 『‘애 에 외 익’의 음가』, 『국어국문학』 1, 1952, 5-8.

\_\_\_\_\_, 『尊待法史: 국어문법사의 한 토막』, 『성균관보』 1, 1954, 139-207.

\_\_\_\_\_, 『龍飛御天歌』, 正音社, 1956.

白井順, 『前間恭作の學問と生涯』, 風響社, 2015.

\_\_\_\_\_, 『前間恭作と田蒙秀—郷歌研究及び『月印歌譜』をめぐって』, 『대동한문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16, 469-493.

小倉進平,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說』, 京城: 近澤印刷所出版部, 1923.

\_\_\_\_\_, 『朝鮮語に於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東京: 東洋文庫, 1938.

\_\_\_\_\_,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Tokyo, 1940.

\_\_\_\_\_,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44.

安田敏朗, 『言語』의 構築: 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 三元社, 1999. [이진호·飯田綾織 옮김, 『言語』의 構築: 小倉進平과 植民地 朝鮮』, 제이앤씨, 2009.]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鈇語攷』, 京城: 東都書籍.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東京: 平凡社, 1945/1979, 101-373.에 재수록]

\_\_\_\_\_,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東京: 平凡社, 1946/1979, 467-480.

\_\_\_\_\_, 『朝鮮語の過去de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東京: 平凡社, 1948/1979, 481-498.

Khraskovsky, V. & A. Ogloblin,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2), 1993 ㄱ, 125-143.

\_\_\_\_\_, The Kholodovich School of linguistic typology : 1961-1991, 『The Petersburg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3), 1993 ㄴ, 113-126.

King, R., Korean language studie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1991, 42-153.

Ramstedt, G. J.,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1939.

\_\_\_\_\_,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 1928, 441-453.

Васильев А. Г.,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ovich(1906~1977), in Ванин, Ю. В.(ed.),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04, 223-235.

КонцевичО, Л. Р., Рукописном наследии А.А. Холодовича, in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Морфология. Прилож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тдела языков 6*.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 Поливанов, Е. Д., К вопросу о 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Корейского и 'Алтайских' языков,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6(21), 1927. [정광, 허승철 역,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친족 관계』, 『한국어학』 24, 2004, 355-378.]
- Троцевич А. Ф., Мой учитель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Холодович,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16, 2014, 27-40.
- Холодович, А. 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1937.
- Холодович, А. А., Из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и агглютинативная теория и проблема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оюза 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1, 1941, 79-98.
- Холодович, А. 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 Холодович, А. 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ГУ № 296. Серия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вып. 13), Изд-во Л, 1960, 42-45.
-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едельных и неопределенных глаголах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языков), *Филолог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3, 3-11.

## Studies of Middle Korean Conducted by Foreign Scholars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龍歌故語箋』 and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

Kim, Taewoo\*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wo grammar Middle Korean grammar writte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Маема's 『龍歌故語箋』 and Kholodovich's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龍歌故語箋』, published during the period when studies on the Middle Korean grammar were seldom, was a book that researchers of Korean historical grammar must read. Kholodovich was one of them. Kholodovich had taught Korean historical grammar at the University of St. Petersburg from the 1940s, and in the 1950s, he was manuscripting the results of his studies on Middle Korean. It was published in 1986 as a completed article composed of 25,000 characters, which is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In the preface of this article, Kholodovich stated that he made many references to Маема's 『龍歌故語箋』 and Ryu Changseon's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해석(1-끝)』.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se articles,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 can be regarded as a decent Middle Korean grammar book that has supplemented and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while accommodating the achievements of 『龍歌故語箋』. In addition, we can witness the spread of Korean studies knowledge

---

\*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that took place during the germination of Middle Korean grammar studies.

**Key words:** Maema Kyosaku, Kholodovich, St. Petersburg, USSR, Middle Korean